

# 광주 장애인 복지 '양호' 교육은 '글썸'

### 장애인총연맹, 전국 복지·교육 비교 조사...광주, 특수교육예산 하위 전남, 특수보조인력 작년보다 하락...의료비 전국 평균 절반 수준

광주시의 지난해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장애인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또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전국 평균에 비해 광주가 3분의 1 수준, 전남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이 조사는 장애인복지수준의 지역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현황이고, 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2021년 조사지표는 17개 시·도별로 교육과 복지의 두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여건을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대비해 총체적·집약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매년 실시되는 교육 분야 9개 지표와 함께 2021년 조사에서는 복지 분야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등

3개 영역 22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전국 17개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분야와 교육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 는올랐으나, 지역 간 편차는 여전히 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78.78점(최고 85.60점·최하 71.78점)으로 광주시(74.8점)는 부산,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등과 가장 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을 받았다. 우수는 대전, 세종, 충북, 전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구, 울산, 충남, 전남(79.86점) 5개 지역이며, 보통은 경남 1개 지역이다.

복지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68.19점(최고 78.22점·최하 62.42점)으로 나타났다. 광주(69.05)는 양호등급, 전남(67.03)은 보통등급에 위치했다.

구체적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분야에서 광주시는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이 2만 7696원으로 전국 평균 3만 4640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남도는 3만 7273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 광주시는 특수학급 설치율이 3.67%로 전국평균설치율에 미치지 못했지만(4.27%), 전남도는 5.37%로 '우수'를 기록했다.

반면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은 전남도는 '분발' 등급을 받았으나 광주시는 '보통' 등급을 받았

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서는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광주시는 10만 428원, 전남도는 15만 1080원으로 전국 평균 33만9676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 광주·전남 두 지자체 모두 장애인 1인당 주거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이 각각 2259원, 1만1955원으로 전국 평균 5만7676원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는 광주시는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전국평균(3.47%)보다 낮은 1.12%를 보였고, 전남도는 직업재활시설 확충수준(6.41곳, 전국평균 10.02곳)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5.83명, 전국평균 6.41명)이 낮아 '분발' 등급에 그쳤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 광주시는 장애인 단체 지원 수준이 전국 평균(광역예산 26만2127원, 기초예산 27만8074원)에 현저히 모자란 수준(광역예산 2만 449원, 기초예산 2만1734원)을 보였다.

전남도도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지표에서 전국평균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492만8199원)에 부족한 362만2520원으로 93.08%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광주시의 장애인 복지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는 반면 장애인 교육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서 "전남도는 장애인 교육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하지만, 보건 일부 지표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가로수 함부로 베어지지 않도록...”

### 지역 환경단체, 광주시에 가로수관리 정책 개선 제안서 전달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지난달 28일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가로수가 잘려나간 것과 관련(광주일보 11월 30일 7면)해 광주시에 가로수 관리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환경운동연합과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 271명은 지난 27일 광주시에 가로수 관리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과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의 가로수 관리 정책으로는 기후위기, 폭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기 못한다”며 “또 가로수는 도시의 환경, 생태 자원일 뿐 아니라 거리의 풍경과 도시의 품격을 만드는 문화, 역사 자원으로 가로수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기 위한 가로수 관리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제안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

한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기존 가로수의 이식과 이식된 가로수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가로수 현황 데이터 구축 ▲30년 이상된 도시 나무의 관리 방향 설정 ▲시민참여 관리방안과 시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맞는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등을 요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사무처장은 “2045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그린시티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가로수와 도시숲 관리 정책 개선을 통해 선도적인 그린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정동 일대 18개동 1976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 중인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8일 사업부지 내 인도에 있던 은행 나무와 메타세쿼이아 118그루를 잘라 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더 좋은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1년 더 좋은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는 아동권리 및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 실태의 문제점 및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사회 대표 아동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국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영)와 광주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최근 '2021년 더 좋은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동권리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국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내년부터 4대 보험료 전면 비대면 납부

2022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그동안 4대 사회보험료를 지사 민원실 창구에서 직접 수납했으나 오는 2022년부터는 인터넷 등 비대면 납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비대면을 선호하

는 사회 환경 변화와 공단의 지속적인 수납채널 확대로 상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지사방문 고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험료를 직접 수납하는 업무개편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지난 2020년 11월월부터 전국 25개 지사를 대상으로 창구수납을 비대면 납부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지사 내 민원실에

무인수납기인 '키오스크'를 확대 설치하는 등 비대면 납부서비스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는 자동이체와 인터넷(공단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정보포털·지로), 모바일, 가상계좌,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 디지털 고지납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추진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남구 장애인 217명 공공분야 일터서 힘찬 출발

### 새해부터 행정복지시설·장애인 단체 등서 주 40시간 업무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광주 남구 관내 장애인들이 새해 공공분야 일터에서 힘찬 출발에 나선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임인년 새해부터 관내 장애인 217명이 17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등지에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힘겨운 여건 속에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과 사회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다.

일자리 사업 참가자 가운데 171명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시설 및 단체로 출근해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근무 시간은 1주일에 5일 40시간을 일하는 전일제 근무와 주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근무, 월 56시간 근무하는 참여형까지 다양하다.

또 장애인 46명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 등에 몸을 담으며, 요양 보호사를 보조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 예정이다.

취업에 더 할 나위 없이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등대가 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으로서 취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행복감을 안겨주고 있다.

조만간 구청으로 출근하는 장애인 A씨는 “장애인 복지를 비롯해 노인, 청소년, 아동 등 다방면의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익혀서 타인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내 스스로가 만든 장벽에 갇혀 홀로 낙오하는 아픈 기억과도 영원히 이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